

3D 업종에서 땀 흘리고 이주노동자 차별대우에 눈물 흘리고

◆. 지난 2019년 5월 한국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A씨는 진도 조도면 멸치잡이 어가에서 일했다. 해 뜨기 전인 새벽 5시에 바다에 나가 오후 8시까지 멸치를 잡았다. 물오오면 잡은 멸치를 삶고 말려 포장까지 한 뒤 밤 11시 이후야 하루 일과가 끝났다. 하루 18시간을 일하고 A씨가 받은 월급은 160만원.

조업이 없는 날에도 A씨는 편안히 쉬지 못했다. 사장이 시키는 집안 일, 사장 지인의 집 보수 공사에도 동원됐다. A씨는 "사장이 다른 집에서 일 하라고 해 거절했더니 'XX새끼야, 빨리야' 라고 욕하면서 화를 냈다"고 말했다.

사장은 A씨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도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 목포에 있는 인도네시아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사장은 3년 동안 이 섬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만 그럴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전남지역 농·산·어업 현장에는 내국인이 떠난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

들에 대한 차별과 냉대는 바뀌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25일 공개한 보고서는 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힘겨운 타국살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고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남 14개 시군에 체류중인 네팔과 동티모르,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 7개 국적 이주노동자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고서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의료 실태, 인권 침해 현황 등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우선, 설문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중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하로 근무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10명 중 2명 뿐인 19.6%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9-10시간 일했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46.4%로 가장 많았다. 11-12시간은 22%, 13시간 이상 일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1.9%에 달했다.

이른바 '3D'업종으로 불리는 농·어업 현장에서 일하는데도, 최저시급을 다소 웃도는 수준의 임금만 받았다. 응답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192만 5000원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의 한달 평균 근로 일수(25일)와 평균 근로시간(11시간)을 최저시급(2020년 기준 8590

원)으로만 계산해도 236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법은 이들에게 예외였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관계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어촌의 경우 농번기와 비조업기가 존재하는 등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악용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근무 중 다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다친 후 어

떻게 대처했느냐고 묻자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치지거나 아프지 않았다'는 응답자(34.3%)를 제외하면 '아픈데 일을 하라고 했다', '병원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참고 일했다', '사업주가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외국인근로자가 42.8%였다. 절반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가 몸이 아파 병원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것이었다.

주거실태도 열악했다. 냉·난방 시설이 없었고 화장실도 없는 비닐하우스 삶을 사는 외국인도 많았다. 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151명 중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임시 건물'에 살고 있다는 이들이 25.8%나 됐다. 육지가 아닌, 배 안에 살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는 응답자도 7.9%를 차지했다.

한편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26일 오후 4시 무안에 있는 전교도 전남지부에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회를 갖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특별전 25일 오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특별전은 '기억의 지층, 기념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최혜배 기자choi@kwangju.co.kr

'잔여백신'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당일 예약

내일 오후 1시부터 가능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7일부터 2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잔여 백신을 조회·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기능은 27일 오후 1시부터 각 앱에서 개통되며, 인근 병·의원에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조회할 경우에는 네이버 앱·네이버 지도 앱 또는 네이버 웹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지도 플랫폼에 각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잔량이 조회된다. 카카오에서는 카카오톡 하단의 샵(#) 탭에서 '잔여 백신' 페이지를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 앱을 통해서도 잔여 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이후 당일 예약을 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선택해 '예약'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예약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전남-경북 '상생 협력' 높인다

오늘 이철우 경북지사 전남 방문
대선공약 등 협력 공동합의 추진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도와 경북도가 상생협력 강도를 높이며 정부에 인구소멸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균형발전을 촉구하기로 했다. 경북(서울-부산)라인에서 제외되면서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대구, 전남·경북이 함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25일 "지난 2019년 12월 김영록 전남지사의 경북도청 방문에 대한 답방 방식으로 26일 오후 이철우 경북지사가 영주-울주군수 등과 전남도청을 찾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초 지난해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연기했다가 최근 전남과 경북이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에 들어가면서 김 지사를 찾았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 전남-경북 상생교류 협약을 맺고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공동 협력,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공동추진 등 6개 과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경우 전남도와 경북도가 함께 용역을 발주했으며, 정부부처, 국회 등을 찾아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

고 있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18개,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2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는데,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보고 있다. 전남에는 이 값이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이 5곳이나 있다.

김 지사와 이 지사는 협력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게 된다. 공동합의문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소멸지역 특별법 제정, 전남과 경북이 추진할 공동 대선 공약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사는 전남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뒤 지난 2017년 9월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조성된 '경북도민의 숲'을 둘러볼 예정이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지난 2013년 영남지역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동서화합을 위해 만든 '동서화합포럼'을 토대로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국토 끝섬 주민 간 교류', '경북도민의 숲-전남도민의 숲 조성'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코로나 19, 수해 등 각 지역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호 지원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전남도가 경남도와 함께 추진중인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에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전남 코로나19 감염이 감염 확산 ▶2면
- 에너지밸리 투기의혹 공무원 정보공개 선택 ▶6면
- 에이스 브룩스, 승리를 부탁해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New S-Class

Trust in the Best.

완전히 새로워진 S-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동대로 1041(화정동)
서문 인문종합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명로(대우 516수원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랑대로 603(반곡 201수원동)
주안 서비스센터 (062)94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랑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400 4M (배기량:2925,공용중량2510,차중량9.1), 복합연비:11.4(도심9.9, 고속도로14.0)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70
- S580 4M (배기량:3982,공용중량2720,차중량12.1), 복합연비:7.7(도심6.8, 고속도로9.9) 5등급, 복합CO2 배출량: 277
* 본 차량에는 표준으로의 차량 안전장치로 선택,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등에 따라 감속할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여의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